

IFS 국가 정책 제언 한국인의 역량 변화: 최근 10년간 국제 비교

- 서울대 경제학부 이정민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 박윤수 교수
- 경희대 경제학과 엄상민 교수

1

한국인의 역량, 최근 10년간 어떻게 변화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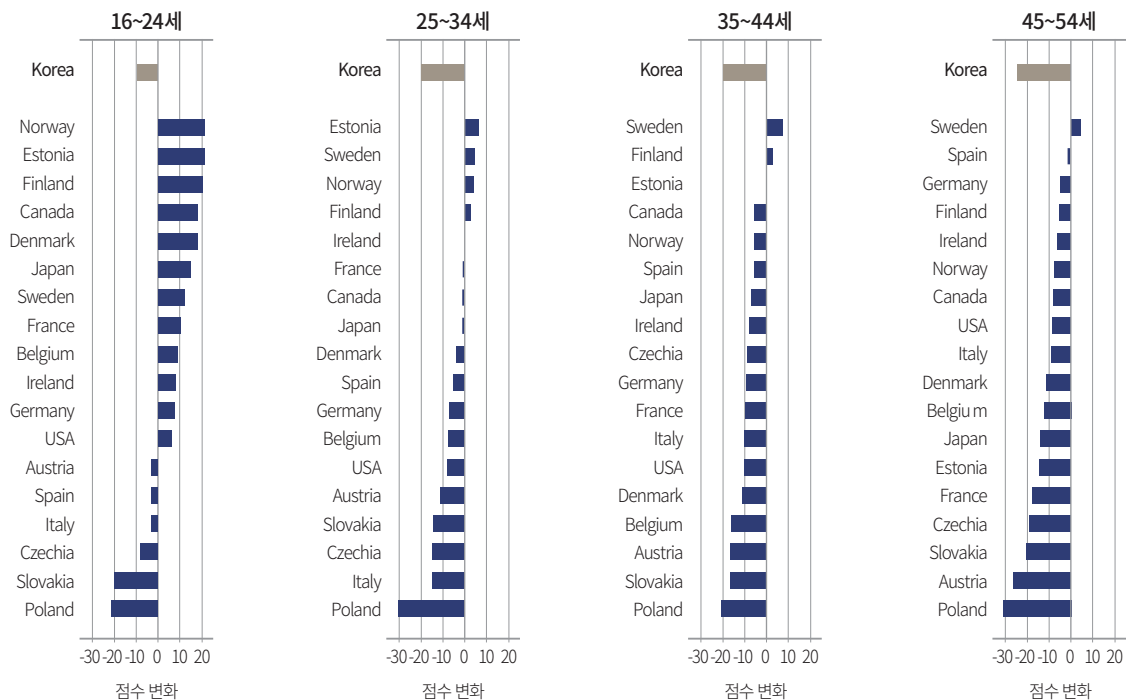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주요국 16~65세의 연령대별 역량 변화

-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주요국 만 16~65세 역량 (언어능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조사임.
- PIAAC 조사는 2011~2012년에 1주기 조사가 실시되었고, 2022~2023년에 2주기 조사가 실시됨.
- 대략 10년 간격으로 실시된 1~2주기 조사를 연결하면, 연령 증가에 따른 역량 변화를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1주기 조사에서 16~24세, 25~34세, 35~44세, 45~54세였던 연령층은 2주기 조사에서 각각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에 대략 해당하므로 두 자료를 연결하면 연령 10세 증가에 따른 역량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음.
- 그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35~44세부터 역량 감소가 본격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한국은 16~24세부터 역량 감소가 시작됨. 나이가 들면서 역량이 퇴화하는 경향은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그 시기가 빠른 것임.

2011~2012년 기준 연령대별 이후 10년간 역량(수리력) 변화



주: 2011~2012년과 2022~2023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19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음. 좌측부터 각각 PIAAC 2주기 조사(2022~2023년)의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평균 수리력 점수로부터 PIAAC 1주기 조사(2011~2012년)의 16~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평균 수리력 점수를 차감하여 산출한 결과임. 언어능력에 관한 결과도 유사하나 지면 제약상 생략하였고, 적응적 문제해결력은 1~2주기 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어 비교가 어려움.

2 학교는 더 다녔지만, 역량은 저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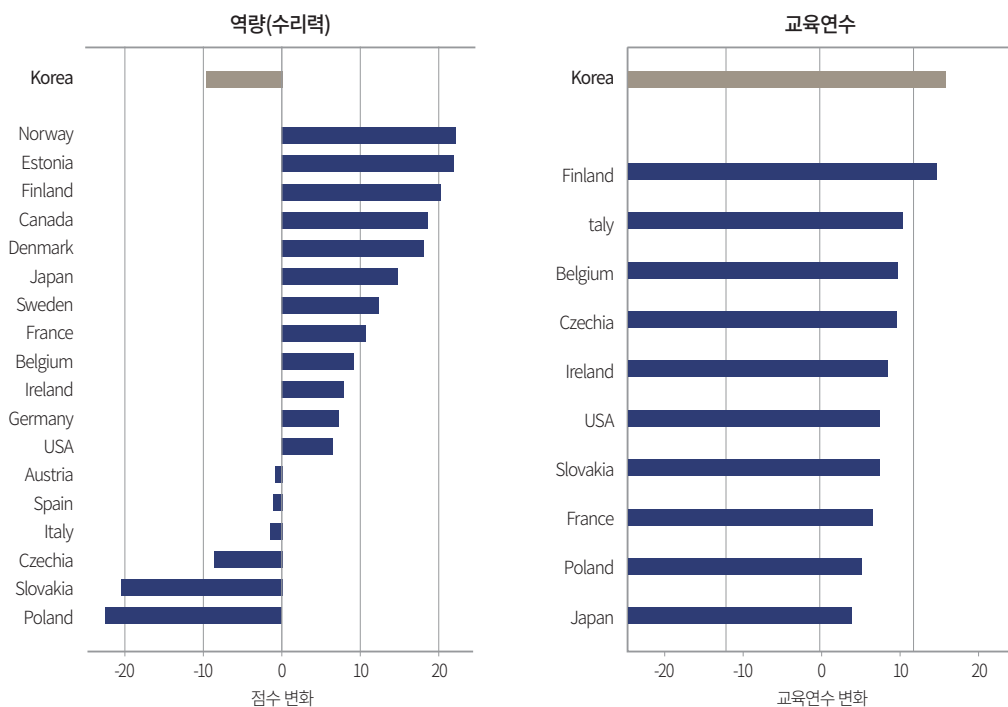
교육연수와 역량 변화

- 교육은 역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정규교육을 활발히 받는 시기인 16~24세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임.
- 아래 그림은 1주기 조사 당시 16~24세의 역량(좌측)과 교육연수(우측)가 약 10년이 지난 2주기 조사에서 25~34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한 결과임. 단, 교육연수는 관련 정보가 비공개된 8개국을 제외하고 분석함.
- 2011~2012년 당시 한국 16~24세의 역량은 이후 10년간 9.8점(3.5%) 하락함. 이는 같은 기간 대부분 국가에서 16~24

세의 역량이 상승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임.

- 반면, 2011~2012년 당시 한국 16~24세의 교육연수는 이후 10년간 평균 3.3년 증가하여 자료가 가용한 11개국 중 가장 많이 증가함.
- 종합하면, 2011~2012년 한국 16~24세 연령층은 이후 10년간 주요국 대비 교육은 많이 받았으나 역량은 이례적으로 감소함.
- 해당 연령층이 주로 받는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1~2012년 당시 16~24세의 이후 10년간 주요 변화



주: 좌측은 PIAAC 2주기 조사(2022~2023년)의 25~34세 평균 수리력 점수로부터 1주기 조사(2011~2012년)의 16~24세 평균 수리력 점수를 차감하여 산출한 결과임. 우측은 교육연수에 대하여 유사하게 분석한 결과임. 단, 교육연수의 경우 관련 정보가 비공개된 8개국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3 한국 노동시장에서 역량은 중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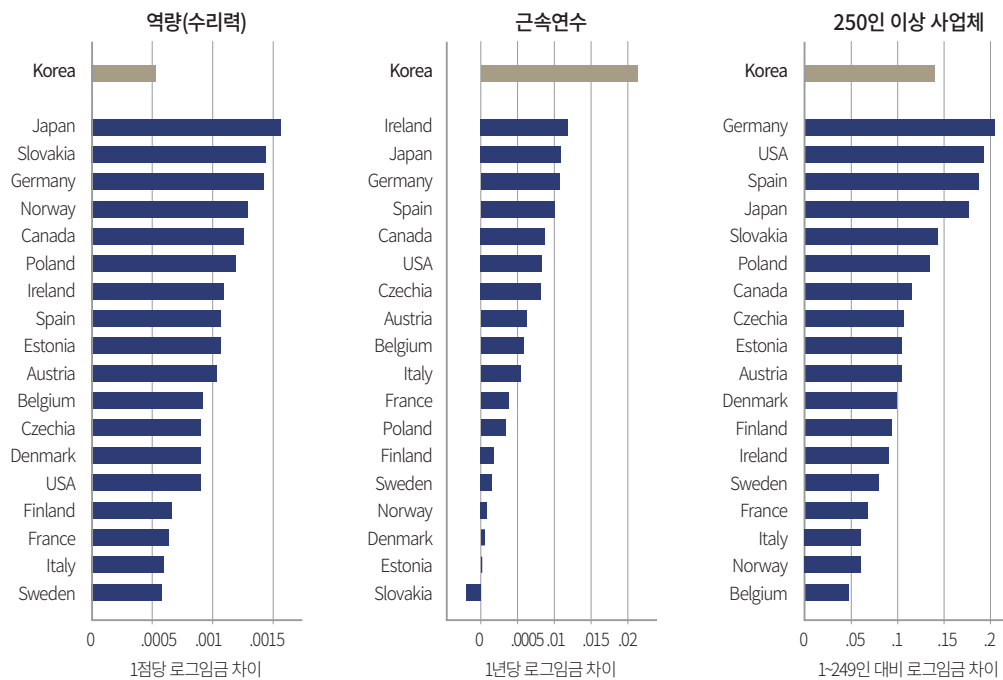
노동시장 임금 보상 구조의 국제 비교

- 학교를 졸업한 개인이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할 중요한 동기는 임금 보상임. 한국 노동시장에서 역량에 대한 임금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앞서 분석한 19개국의 임금 결정구조를 분석함.
- 아래 그림은 국가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교육연수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각 역량, 근속연수, 사업체 규모(250인 이상 종사 여부)에 따른 시간당 임금(단위: 자연로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임.
- 한국의 경우, 19개국 중 역량에 대한 임금 보상은 가장 작았고, 근속연수에 대한 임금 보상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차이도 평균 이상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고임금을 받으려면 높은 역량보다는 대규모 사업체에서 장기근속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의미함.
- 이와 더불어,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역량이 주요국보다 빠르게 퇴화하는 경향을 설명할 수 있음. 노동시장에서 역량에 대한 임금 보상이 낮으면 노동자가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할 유인도 적을 것이기 때문임.
- 역량의 조기 퇴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임금구조 개편도 동반될 필요가 있음.

2011~2012년 주요국 임금 수익률 비교



주: PIAAC 1주기 조사(2011~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임금근로자의 로그 시간당 임금(미국 달러, 구매력평가 기준)을 성별, 연령, 교육연수, 근속연수, 역량(수리력 점수), 고용형태(정규직 여부), 사업체 규모(250인 이상 여부), 직종(10개 분류), 산업(21개 분류)에 대하여 회귀분석하고, 역량, 근속연수, 사업체 규모에 대한 OLS 추정치를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임. PIAAC 2주기 조사(2022~2023년) 자료에는 노동시장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되어 자세한 분석은 어려우나, 역량에 대한 임금 보상이 낮은 경향은 유사함.